

들어가는 말

세계적인 K-Pop 스타 방탄소년(BTS)은 2017년부터 UN 산하 기구인 UNICEF와 함께 ‘Love Myself’ Campaign을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했던 연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fears, but I am going to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little by little.” 자신은 그동안 많은 실수와 두려움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포용하고 힘껏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는 BTS의 메시지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은 내 힘과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동력이 되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리지만, 율법주의는 우리를 죽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할렐루야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꺼리며 거리를 두었던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바울의 책망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본문에 나오듯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약 9년, 10년이 지났지만,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자신을 찌르고 있었고 바울의 사역은 아직 이렇다 할만한 사역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율법주의, 완벽주의에 젖어 있었던 사람에게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은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분이 일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주안에서의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에서의 동역을 제안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맺는말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의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열등감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합니다. 우리의 약점마저 자랑케 하는 놀라운 자유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 묵상질문

1.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나요? 솔직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체험처럼 나의 장점을 의지하며 살다가 오히려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영광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수요일예배

장년 한어예배	7:00PM / 본 당
장년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금요일모임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00PM / 안디옥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월-토 6:00AM / 본 당
영어부	화-토 6:00AM / N-202

주일예배

장년 한어예배 1부	7:40AM / 본 당
장년 영어예배 2부	9:20AM / 본 당
장년 한어예배 3부	11:00AM / 본 당
사랑부 예배 (장애인)	1:20P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나사렛
	11:00AM / 베들레헴

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	---------------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담임목사 송 경 원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데이케어 253.535.9435 | 기도원 253.847.2250



주 일 예 배

* 경배와찬양	1부: 313장(새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57장(새 43장) “즐겁게 안식 할 날” 3부: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세”, “저 바다보다 더 깊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대 표 기 도	1부: 김연정 집사 3부: 안병철 집사
봉 헌 찬 양	1부: 505장(새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3부: 성가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공동체소식	인도자
* 성 경 말 씀	고린도후서 12:1-10
설 교 제 목	“주안에서의 자유 5”
말 씀 선 포	송경원 목사
* 응 답 찬 송	1,3부: “오직 예수 뿐이네”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수요성령예배		예 배 위 원	
찬양과기도	수요찬양팀	이	1 부: 김연정 집사
대 표 기 도	영라버츠 집사	번	3 부: 안병철 집사
제 목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	수요: 영라버츠 집사
성 경 말 씀	사도행전 8:1-9	다	1 부: 영분엘리엇 집사
말 씀 선 포	전우일 목사	음	3 부: 박종길 은퇴안수집사
		주	수요: 영숙보이스 집사

드려진 예물

공동체소식

-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안내팀을 통해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요성령예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수요성령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디오다훈련 2단계와 하나님의 VIP 2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도회 월례회: 6/12(오늘) 3부 예배후. 전도회별로 모임을 갖기 바랍니다.
- Youth/YAM Summer Kick-Off(유스/청년 친교 피크닉): 6/17(금) 오후 7:00-9:00,
장소: Spanaway Park Shelter C. (식사를 제공합니다)
- Kids Summer Kick-Off: 6/22(수) 오후 7:00-8:30. 아이들이 여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미
있는 활동으로 가득한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로비, 홈페이지, TFBC Kids 앱에서 등록 바랍니다.
- 중보기도 전체 모임: 6/25(토) 오전 10시, 성가대실. 대상: 중보기도 헌신자
- 2022 VBS: 6/28(화)-7/2(토). 대상: 2018년 12월이전 출생한 어린이부터 현재 6학년
1) 등록: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회비 납부 되어야 등록 완료) \$60
2) 봉사자 및 중보기도자 모집 : 로비에 사인업. (문의: 리아안 전도사)
※ VBS Prayer Walk: 6/25(토) 오전 7:30.
- 어린이부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Kids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간 뉴스레터와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Kids 앱으로 연결됩니다.
- 유년부/유치부 오전 9:30 예배를 섬겨줄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리아안 전도사)
- 2022년 하반기를 맞아 업데이트된 개인 및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도요청서에 작성하여
로비의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역

- 담임목사: SBC 총회/미주남침례교 한인교회 총회 참석(6/13-16, LA)
- 학생부 사역자 청빙 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부 지침에 따라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 증상처럼 아픈 경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24시간 기도 핫라인: 남궁곤 목사(253-753-8310), 봉숙오글 전도사(253-359-7869)

교우동정

소 천: 故 문충현 성도(문창선 원로목사 아들) 천국환송 예배: 6/17(금) 11시, 안디옥 성전.
중 보: Conard Goering, Floyd Richardson, Mack Horne, Rick Dollar, William Ellis,
Eric Mose, Clarence Turner, Ken Adkins, 서인자, 임숙깁빈, 인자킹, 정자얼프,
순천터너, 박지영